

# “타종교 선교 위기감이 한글 역경 불러”

## 보광 스님, 용성 스님 역경 사업 원인 분석

한국불교 역경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근대 용성 스님의 한글역경 사업이다. 용성 스님은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 후 출옥한 1921년 ‘삼장역회’를 조직해 불교경전의 한글화에 들어갔다. 불교가 대중 속으로 다가가기 한다는 생각으로 <조선글 화엄경> 등 불경 30여 종을 번역했다. 용성 스님이 경전 한글화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각사상연구원 원장 보광 스님은 10월 7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용성 스님과 한글 화엄경’ 주제 학술대회에서 용성 스님의 한글 역경 원인을 밝혔다.

보광 스님은 “용성 스님은 독립선언서 발표의 일인으로 서대문 감옥서 삼년을 사셨다. 당시 타종교는 한글서적이 대부분인데 반해 불교경전은 한글로 된 서적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라며 “당시 사법들이 한글로 번역된 타종교 서적을 공부하는 것을 보며 한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이후 용성 스님은 적극적인 도시포교와 경전이나 포교서의 한

글화 원력을 세웠다”고 말했다.

스님은 “용성 스님은 ‘일요일이면 각 교회당에서는 종소리를 쟁쟁히 울리면서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여들지만, 하나밖에 없는 각황사에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 ‘선종이라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포교를 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 주

### <우리말 화엄경> 편찬의 의미 조명

### 형무소서 한글 성경 보고 자극

### 30여종 불경 한글로 번역

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개탄하셨다”고 소개했다.

보광 스님은 용성 스님이 경전을 한글로 번역할 당시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천한 것으로 취급받던 한글로 불경을 번역하게 되면 품위가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1921년 4



월 경전 번역을 위해 조직된 삼장역회(三藏譯會)는 용성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주요 역경 불사에 매달려 첫 한글판 경전인 <금강경>을 출간한다. 이후 <심조만유론>과 <선역대장경>, <수심정토>, <선문환요점의역>, <대방광불화엄경> 등 수 많

은 한글 경전들이 편찬됐다. 총 30여 종의 불경이 우리말로 번역됐으며, 불교계에 처음으로 ‘찬불가’도 제작돼 보급됐다.

보광 스님은 당시 타종교의 선교가 활발했음을 들며 용성 스님의 신심과 타종교의 범람에 대한 위기감에서 스님의 역경원력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시대 변화에 따른 한문경전의 무용론, 한글세대의 확산, 민족적인 감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며 사업이 본격 전개됐다고 분석했다.

보광 스님은 “<조선글 화엄경>의 번역과 출판은 한국불교사에서 큰 변화이며, 한국 불교 역경사에서 큰 족적”이라며 “한글 최초의 <화엄경> 편찬은 오늘날 한국불교에서 화엄학 연구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학술행사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도업 스님의 ‘화엄사상 법신불 사상’, 신구학 연세대 교수의 ‘한국불교에서 <화엄경>의 위상과 한글번역’, 김광성 동국대 연구교수의 ‘근현대 화엄사의 사적과 진진응·이동현스님’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학술 · 문화재소식

### ‘실크로드와 한국불교’ 국제학술대회

고려대 한국사연구소는 10월 12~13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실크로드와 한국불교문화’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선 △조운재 인제대 교수의 ‘고대 한국의 우조관(烏羽冠)과 실크로드’ △최석두 고려대 교수의 ‘근대 조선과 실크로드’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연구원의 ‘실크로드 지역 조사를 통한 불교문화사적 고찰-실

크로드 고대국가의 불교문화’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의 ‘7~10세기 실크로드 동단에 있어서 불교문화의 역류’ △한지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동아시아 고성의 형성과 불교 전래의 연관성 재고-실크로드 서막남도 동아시아의 고성 비교’ △임상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원의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의 간본에 관하여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 북한의 문화유산 학술세미나

문화유산연구소(소장 이태호)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최선일)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북한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한정순 교수(건국대)가 ‘고구려 고분벽화의 제작 기술, 흥영의 교수(숙명여대)가 ‘개성의 사찰과 불교문화’, 최선일 소장이 ‘배천 강사사 조성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영철, 박정민 팀장(한울

문화재연구원 유물보존팀)이 ‘북한의 도자기마터 발굴과 연구사적 검토’를 발표한다.

한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산하 작가 모임 나우회는 불교문화의 틀레길 만들기 기획전 ‘보살, 마음을 담다’를 개최한다. 행사는 9일~다음달 11일 월정사 성보박물관, 내년 4월 20일~5월 31일 배연재미술관, 내년 9월 27일~10월 2일 총복대서 열린다. (070)4207-5674

노덕현 기자

### “한·중·일 고판화 보러 보세요”

#### 원주 고판화박물관 200여 점 전시… 학술대회도 열려

원주 고판화 축제가 12일부터 3일간 강원도 원주 치악산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학술대회,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이 중 학술대회는 국내 최초의 고판화 관련 국제학술대회여서 관심을 더한다.

주심해 북경수도도서관 부관장을 비롯한 중국측 2명, 이리구치 아츠시 국립국문학연구소장 교수 등 한국측 3명이 발표하는 이번 자리에서는 한국·일본·중국의 목판본과 그 삽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된다.

200여점의 판화로 구성된 전시회는 특별전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시민을 위

한 판화체험교실은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 고판화계에서 유일하게 인간문화재에 등록된 마스흠 선생이 직접 지도하는 판화전문가와 교사, 서지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한·중 전통 판화 워크숍도 고판화박물관 전통판화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12일 저녁 야외마당에서는 판화와 함께 하는 산사 작은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고려시대까지 중국과 일본보다 앞섰던 한국의 판화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판화 축제가 판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고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2011년 열린 제2회 고판화축제서 높은 호응을 얻은 판화시연회 모습

### <대승기신론> 최고본(最古本) 주석서 발견

#### 금강대 불문연, ‘불교문헌의 번역과 유동’ 주제 학술대회서

금강대(총장 정병조)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학연구소센터가 10월 9일 금강대에서 개최한 ‘불교문헌의 번역과 유동’ 학술대회에서 <대승기신론> 최고본 주석서가 공개됐다.

<대승기신론> 주석서는 월호 스님의 <대승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별기>가 중국 법장 스님의 <대승기신론의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동안 중국 열반학파 스님인 담연(曇延) 스님의 <대승기신론의소>(6세기)가 <대승기신론> 주석서 중 최고본으로 인정돼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이케다 마사노리(池田 將則) HK연구교수는 담연 스님의 주석서에 선행하는 주석서가 돈황사본 중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했다.

이와 함께 하나조노대학 오오타케 스스무(大竹 晋) 박사는 ‘<대승기신론>에 진제의 영향은 있는가?’ 발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이 인도삼장의 구술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에서 찬술되었음을 밝혀 <대승기신론> 찬술 문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 외에 △오사카대학 쇼노 마사노리(生野 昌勲) 박사가 ‘율장 관련 新 산스크리트어 사본 스코이엔 콜렉션과 미국 버지니아주 개인 콜렉션’, △고마자와대학 후지이 준(藤井 淳) 박사가 ‘일본에 현존하는 불교 사본 문헌 -수감(手鑑)과 주경(注經)-’ △금강대 김성철 HK교수가 ‘<고트라>의 번역 용례를 통해 본 진제역 『불성론』의 불성 개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생명윤리학회 학술토론회 개최

불교생명윤리학회(공동대표 법음·박광서 교수)는 10월 12일 ‘불교생명학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이도흠 교수(한양대)의 ‘불교생명학의 원리와 지향점’과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학과)의 ‘21세기 현실에서 불교생명윤리의 과제’ 양형진 교수(고려대 반도체물리학과)의 ‘자연과 학 관점에서 본 탈해·탈원전’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 종교와젠더, 10일 제2회 불교와젠더 포럼

종교와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는 10월 10일 서울 우리함께빌딩 3층에서 ‘티벳 비구니 수계 문제를 둘러싼 지역적·지구적 관점의 논쟁들’을 주제로 제2회 불교와 젠더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티벳에 비구니 계단이 성립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고찰이 진행된다. 미철 한나 호주 멜버른대 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070)4193-9933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호스피스협 창립 기념세미나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가 대구 한국불교대학교 대관실에서 오는 10월 20일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불교호스피스협회 상임이사 능형 스님이 ‘나는 호스피스인’을 발표하며 활동사례에서 고퍼환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의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등이 진행된다.

지난 2009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KBHA)는 호스피스실천가 양성과 지속적 호스피스활동 지원을 위해 불교임종지도사와 임상사례 연구 활동과 학술세미나를 병행하고 있다. 협회장 지현 스님은 부산 관음사 주지이며 사회 복지법인 늘기뽀마를 대표다.

노덕현 기자

###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술대회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은 10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관사상의 원류와 변용’을 주제로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남수영 동국대 교수의 ‘용수의 중승에서 상호의존적 연

기의 논리와 형태’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후기 중관사상에 있어 이제설의 전개’ △신상환 인도 비스바 대 교수의 ‘티베트 불교의 오해와 이해’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인도 중관학의 동아시아적 변용’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 대성산악곡

5th KOREA YOUTH CHORUS FESTIVAL

## 제5회 청소년합창제

2012. 10. 13(토) 오후 2시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본선참가학교]**

- 1 부산 해동중학교 해동합창단 (임희숙)
- 2 창원 창원여자고등학교 칸타빌레합창단 (김세홍)
- 3 경기 광남고등학교 광남합창단 (이혜숙)
- 4 경기 매향중학교 Good Seed Woman's choir (신명섭)
- 5 김해 김해여자중학교 아젤리아합창단 (이민희)
- 6 양산 신주중학교 신주싱어즈 (김정웅)
- 7 부산 금정중학교 Andante Choir (이의원)
- 8 부산 해연중학교 라온제나합창단 (박수연)
- 9 서울 송곡여자고등학교 스피나토합창단 (이규천)
- 10 양산 웅상중학교 웅비합창단 (최민성)

**[시상내용]**

대 상 (1팀) 중고 구분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200만원 지도자상-부산시교육감상/50만원  
 금 상 (2팀) 중고 2팀 부산광역시장상/150만원 지도자상-동국대학교 총장상/20만원  
 은 상 (2팀) 중고 2팀 부산시교육감상/100만원 지도자상-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상/20만원  
 동 상 (2팀) 중고 2팀 동국대학교 총장상/70만원 지도자상-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 총재상/10만원  
 장려상 (3팀) 중고 구분 없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상/50만원  
 지도자상-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 협회장상/10만원

※ 대상은 점수 미달 시 시상 안 될 수도 있음.

**[심사위원장]**

김동현  
수원대학교 대학원 교수, 코리아챔버싱어즈지휘자, 세계합창올림픽(WCG)심사위원

**[문의]** 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 사무국(051-513-4306)

주최 (사)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동국대학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